

9장 : 그리스 고전기 예술에서 바로크 예술까지

◆1교시 : 서양 예술의 전통이 형성된 그리스 고전기

▲그리스 예술사

지난 시간에 고딕에 대해서 했었죠? 역사적으로는 고딕과 르네상스 중심으로 지난 시간에 전개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다음 시기로 넘어가는 매너리즘 그리고 바로크, 바로크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로코코까지 하겠습니다.

홈 패인 예술, 매끈한 예술이라는 부제를 달았는데, 첫 시간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기억이 나시죠? 누누이 그 관계를 설명해 왔기 때문에 유목적/정주적, 홈 패인/매끈한, 수목형/리쭈름형 맥락으로 내려온 셈이죠. 그 미학적 테마를 가지고 고대에서부터 중세를 거쳐서 르네상스를 지나 근대 깊숙이 들어가는 시점인데요.

홈 패인 공간이라는 것을 다시금 짚고 넘어가자면, 홈 패인 공간은 일정한 규칙과 질서가 존재하는 규정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매끈한 판에 홈을 파서 물을 부으면 홈을 따라서 흐르겠죠.

하지만 홈이 없는 매끈한 판에 물을 붓는다면 무규정적으로 자유롭게 흘러가겠죠. 그렇듯이 어떤 정해진 일정한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규범적인 것, 질서, 규칙이 존재하는 곳을 홈 패인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술에 있어서, 홈 패인 것이라 하면 전통적인 규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지켜져야 할 형식, 규칙들.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 건축에서 찾아보자면, 알베르티가 고대 건축의 정적이고 유클리드 기하학에 기반 한 안정적인 비례와 조화를 건축에서 피하고자 했죠. 그런 구체적이고 수리적인 의미를 건축의 기본 요소인, 정사각형, 정육면체, 원, 구 등.

그렇게 건축의 기본 요소에 수리적 의미를 부여하고 꼭 따라야 하는 이상적인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건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규정된 규칙들, 정해진 규율 같은 거죠. 그것들을 들뢰즈나 가타리는 어떻게 설명했나요? 고딕과 르네상스를 설명하면서, 제한으로서의 대칭과 역량으로서의 반복을 대치하고 있죠.

서양 예술에서 이런 전통이 형성된 것은, 그리스 고전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르네상스 시대에 부활된 것이죠. 르네상스에서 부활된 전통이라는 것. 한 마디로 예술에 있어서 홈 패인 것, 규정적인 것, 규범적인 부분이 그리스에서도 고전기에 형성되는데요.

그리스를 예술사에서 개괄해보면, 보통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아르카익기, 고전기라고 하죠. 초기의 소박한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BC 7세기경에서 BC 5세기경까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고전기가 BC 5세기에서 BC 4세기경. 그 다음이 헬레니즘기라고 해서 BC 4세기에서 그리스 멸망까지. 말하자면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했던 시기입니다. 대략 270년

정도 됩니다.

헬레니즘기라고 하면 334년부터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이 시작되거든요. 알렉산더 원정과 함께 서방 그리스 문화가 동방 문화로 옮겨가면서, 동쪽의 페르시아에서 인더스 강까지 알렉산더가 차지한 땅 안에서 동양 오리엔트와 서양 그리스 문화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해요.

아까 말했듯이 예술에 있어서의 규범과 전형이 형성된 시기가 바로 고전기예요.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BC479 년에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해요.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어요. 처음에 페르시아가 굉장히 영토도 넓고 힘이 막강하고 찬란한 문화를 가진 큰 제국이었어요.

반면에 그리스는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죠. 에게해(Aegean Sea)를 사이에 두고 산만하고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폴리스로 형성된 나라였죠. 페르시아에 비하면 굉장히 작고 인구도 적고 땅 덩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시기에 페르시아 다리우스 대제 시절에 굉장히 힘이 팽창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변방 쪽 식민지를 페르시아가 치게 되고, 그러면서 그리스 폴리스가 연합해서 페르시아와 일대 대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 이후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에서 그리스가 다 이겨요. 마지막으로 이때 페르시아가 완전 패배하죠.

그때 그리스의 몇천 안 되는 연합군이 페르시아의 십만 대군을 물리쳤다고 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역사 의미를 가져요. 동서양의 첫 대결이다. 거기서 서양이 동양을 이긴 거죠. 그러면서 서양 우월주의의 기초가 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아주 상징적 의미를 띠고 있는 게 페르시아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479년에 그리스에 페르시아에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그 시대 페리클레스라는 뛰어난 지도자를 중심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는 시기예요. 그 시대는 전쟁으로 모아졌던 폴리스의 힘이 개인의 삶이나 사회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쓸리게 되죠. 그러면서 학문, 예술, 문화가 발전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도 뿌리 깊게 정착하는 시기였고요. 정치, 경제적으로 다 안정된 시기였죠. 아고라 광장에서 정치 토론을 한다든가 야외극장을 설치해서 공연이나 연극, 음악회 등의 활동이 일어나고, 신전이나 신상들이 많이 건립됐던 시기예요. 그리스의 황금기라 할 수 있죠.

▲예술의 기본 원리가 탄생한 그리스 고전기

앞으로 서양 예술을 지배할 하나의 전형이 이 시대에 탄생하게 됩니다. 이 시대 예술가들은 사람의 인체를 조각하고 다룸에 있어서, 규범화된 비례를 찾고자 했어요. 수리적인 정확성, 그 시대 철학, 과학, 수학이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지적인 원리들이 예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거죠.

기원전 5세기 중엽에 중요한 조각가가 한 사람 거론될 수 있는데, ‘폴리클리투스’라는 조각

가 예술에 있어서 규범이 될 만한 논문을 써요. 『canon』 예술에 있어서 수리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비례나 조화의 중요성. 그러니까 미의 중요성을 하나하나의 부분적 요소들인 얼굴이나 몸이라는 요소에 미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비례와 조화를 미의 기준으로 설정**하게 된 거죠.

모든 부분들이 그 시대의 수학적 원리들에 입각한 비례와 조화에 딱 맞게 인체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조각품들의 황금비율이라고 하는 규범이 이 시대에 설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 조화, 비례가 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비롯된 개념이에요.

또, 외형으로 드러나는 단순미, 명료성, 균제미, 절제의 전형이 이때 형성돼요. 그래서 외형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명료하면서 균형과 조화가 맞고. 특히 건축에 있어서 대칭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죠.

이 시대에 이런 미의 기준이 설정되고, 서양 예술에서 주류를 형성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르네상스 시대에 부활되는 거죠. 그래서 알베르티가 말했던, 건축에 있어서의 기하학적 원칙들에 기반 한 정사각형, 정육면체, 원, 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감 있는. 르네상스에 이 원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죠.

◆2교시 : 매너리즘 예술의 특징

▲매너리즘 시대로의 이행

이와 같은 예술의 전형이 르네상스 시대에 부활해서 건축, 조각, 회화 등 모든 예술 분야에 적용되게 됩니다. 바로 공통된 하나의 형식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에 맞춰서 모든 창작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것이 16세기 전반 르네상스 전성기에서 그 이상이 달성돼요. 르네상스 시기를 보통 14세기 후반부터 16세기까지로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 16세기 전반부를 가장 르네상스의 완성기, 전성기로 놓고 그때에 모든 르네상스가 예술에 있어서 추구했던 이상들이 실현되는 시기죠.

그리고 16세기 후반이 되면, 후기 르네상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달성해 놓은 모든 규범들이 많이 해체되기 시작하는 쇠퇴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르네상스의 쇠퇴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매너리즘’시대가 되는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의 16세기 전반이 완성기고, 절정기고. 르네상스 시대의 고전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6세기 후반부를 쇠퇴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르네상스 때 이루어놓았던 것이 여기 와서 많이 깨지는 거죠. 이 시기를 매너리즘 시대라고 해요.

르네상스에서 많이 추구했던 것이 있었죠. 그리스 고전기에 실현됐던 규범을 되살리고, 그

리스 시대에 보여주었던 사실적인, 자연모방적인, 사실성의 획득이 이 시대에 다 이루어지죠. 르네상스 전기부터 많은 예술가들이 끊임없이 노력했죠. 사실성의 획득을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만큼 자연 모방을 제대로 해내느냐는 거죠. 얼마만큼 재현을 제대로 해내느냐. 14세기 회화에서는 원근법을 처음 도입한 마사치오부터 시작해서, 평평한 평면에 어떻게 하면 3차원의 현실세계를 그대로 재현해내느냐에 골몰했죠. 어떻게 하면, 3차원이 갖는 특성, 원근법이나 입체감을 살려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돼요.

많은 시행착오와 피나는 노력 끝에 그걸 완성시킨 게 16세기 전반이에요. 이 시대는 대가들의 시대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와 같은 대가가 활동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바자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시대에 미켈란젤로에 이르러서, 그리스의 이상이 다 부활됐다. 그래서 레나시타라는 말을 쓰고, 르네상스라는 말이 거기에 비롯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다 이루어 놓으니, 후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추구할 게 없어진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보면, 3차원 입체를 2차원에 옮겨놓는다는 게 당시로서는 대단한 거였죠. 그 시대에 발달하는 과학의 힘을 얻어 해부학이 발달하고, 많은 명암법, 원근법을 실현할 수 있는 시기였죠.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죠. 부자연스럽고. 뭔가 입체감은 나는데, 말을 그렸는데 목마 같아요. 워낙 입체감에 신경을 써서. 입체감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부자연스러웠던 거죠.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오면, 자연스럽게 입체감과 3차원적인 특징을 다 실현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 시대로 가면, 더 이상 실현할 무언가가 남아있지 않은 거죠.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그만큼 이들의 목표가 뚜렷했던 거예요. 르네상스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게. 중세 1000년 동안 눌렸던 그리스 로마의 정신인 사실성 획득, 자연 모방, 재현의 전통을 다시 살리고자 했던 목표가 뚜렷했던 거죠.

▲매너리즘 예술의 특징

그러니까 그 다음 시대로 가면, 주로 대가들의 정신을 이어받지 못하고 수법만을 베껴내고 해서, 매너가 기법이나 수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매너리즘인데, 약간 폼하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떤 일면이 있느냐면, 모방을 하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예술가들은 전통의 규범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했어요.

새로움의 추구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새로움을 구사했느냐면, 아주 기발한 것, 독특한 것, 주목을 끌만한 것들에 아주 주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완성된 원근법이나 형태적인 완성도를 해치게 해서 일그러뜨린다는가 형태를 왜곡시키는 기법을 썼죠. 혹은 비현실적인 색채, 우리가 보는 살 혹은 머리의 사실적인 색채가 있잖아요. 일부러 비현실적인 색채를 쓴다는가 해서 작위적인 면이 있었죠. 가식적으로 일부러

독특한 세계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말했던 그리스 고전기, 그것이 다시 부활한 르네상스 고전기의 규범에서 벗어나서 거기에 대한 폼하와 조롱이 섞인 거예요. 호의적인 의미에서 붙여진 게 아니고, 고딕처럼 야만족 예술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모범에서 벗어나면 욕을 먹어요.

사람들 중에 재기발랄하고 툭툭 튀는 사람이 있죠. 이따 작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발한 작품이 많아요. 작품 속에서 반짝반짝한다는 분위기. 어떤 기존의 질서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모색하는 시기라고 평할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이 다양하고 의도적인 조작을 통해서 개성과 독창성을 추구하되, 일부러 뭔가 비틀기도 하고 완성도를 파괴하기도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한 마디로 매너에 많이 추구하는 거예요. 기법과 수법에 많이 몰두한 거죠. 이것에 의해서 작품을 새로움과 그들의 독창성 추구에 포인트가 맞춰진 거예요.

르네상스와 바로크. 역사적으로 보면, 매너리즘은 과도기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바로크로 가면, 반전통의 기운이 훨씬 무르익고. 매너리즘의 작위성을 넘어서서 이제는 르네상스가 갖는 규범과 질서, 전통, 모범, 전형을 깨는 거죠. 바로크에 가면 훨씬 깨려고 하고 매너리즘은 어느 정도 전통이나 규범을 모방하려는 면도 있으면서 그 안에서 독특한 기법을 써서 전통을 깨거든요. 일부러 일그러뜨리거나.

그러나 바로크로 가면, 매너리즘의 작위성으로부터 벗어나서 더 깊이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바로크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면, 매너리즘과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3교시 : 바로크 예술과 로코코 예술의 특징

▲17세기 유럽의 예술

바로크 예술이 성행했던 17세기 대해서 예술적으로 간단히 언급해야 하는데, 17세기 예술을 개괄하면요. 17세기 유럽이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종교개혁을 함께 거치게 되죠. 종교개혁 이후로 구교, 신교로 나뉘죠. 구교권은 주로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남유럽권, 신교권은 북유럽권, 구교는 로마 가톨릭이고 신교는 개신교죠. 아주 피비린내 나게 오랜 세월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바로크는 바로 구교의 가톨릭계 예술이에요.

개신교의 특징은, 우상숭배를 금지하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예술은 급속히 쇠퇴해요. 대신 세속적 예술이 발전하게 되죠. 세속화가 그려진다고거나, 세속적 건물들. 교회 중심에서 회당이나 공공건물이 건축의 주요 주축을 이루게 되고요.

그림에 있어서는, 세속화들. 그 이전까지는 종교화들이었죠. 성당을 장식하는 종교화, 종교 조각, 성화, 성상들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것들이 등장하죠. 북유럽 네덜란드에서는 풍경화가

유명하죠. 풍경화나 초상화, 이 시대에 주축을 이루는 부르주아 계통의 초상화. 정물화. 한마디로 비종교 예술들이 많이 등장해서 주축을 이루게 돼요.

신교는 종교개혁을 주장한 쪽이고, 구교는 반종교개혁이죠. 그래서 비참하게 싸우잖아요. 신교는 청교도정신에 입각해서 예술성향이 단순, 소박하고 실질적으로 가는 반면, 구교는 더 화려해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웅장해져요 점점.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크 예술의 복잡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건 말로 형용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특히 건축에서 보여지는 걸 보면요. 그만큼 자기네 것을 더 강하게 주장하면서 싸웠던 거죠.

▲그리스, 르네상스와 바로크 예술의 차이

바로크라는 명칭이 이런 뜻을 다 담고 있어요. 화려, 복잡, 웅장 등. 바로크(Baroque)란 어휘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일그러진 진주’란 뜻을 담고 있어요. 왜 이런 명칭이 주어졌느냐? 그리스 고전기, 르네상스 전성기에 추구했던 규범이 어떤 것이었죠? 이 시대에 규범이 어떤 게 있었는지 차례대로 정리해서 보면, 균형미, 조화미, 대칭 특히 대칭은 건축에서 뚜렷하게 드러나죠.

반면에 바로크 쪽은, 이것과 정 반대의 개념으로 나아가죠. 불균형과 비대칭, 보시면 알 거예요. 특히 건축을 보면 확연하게. 알베르티가 추구했던 전형이 있었죠. 대칭을 중심으로 원, 정사각형, 육각형 같은 것들. 이런 대칭성, 조화, 균형이 바로크로 오면 다 깨져요. 그러면서 안정감은 굉장히 불안정하게 표현되고요, 절제됐던 표현들은 과장이 심해진다고 평하죠.

절제라고 하면, 기법에 있어서의 절제도 들어가지만 내용에 있어서도 절제돼 있어요. 르네상스 회화, 조각을 보면 인물이 무표정에 가까워요. 그리스 조각 기억나실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의 성화를 보면 아주 고요해요. 감정도 절제돼 있는 거죠. 외적인 표현뿐 아니라 내적인 감정까지 절제돼 있는 거죠. 과장돼 있다는 건 표정, 표현이 풍부해지는 거죠. 다양하고 풍부해지는 거죠.

그리스와 르네상스 시기가 정적이라면 바로크는 역동적이에요. 제스처도 절제와 통하는데, 크게 제스처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크로 오면 다이내믹해지죠. 이리 뒤틀고 저리 뒤틀리고. 격렬할 정도로 표현이 심해져요.

그리스, 르네상스가 단순미를 추구했다면 바로크는 복잡하고 화려해져요. 일그러진 진주라는 표현이 왜 들어갔는지 알겠죠? 조화, 균형, 대칭이 일그러졌다는 말이에요. 파괴되고. 그러면서 바로크라는 말에는 ‘터무니없다, 기괴하다, 괴상하다’는 안 좋은 의미가 담겨있어요. 매너리즘과 마찬가지로 그리스 고전기와 르네상스 전형기의 예술의 전형, 규범, 질서로부터 벗어나면 다 폄하되고 경멸되고 조롱받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크죠.

▲들뢰즈/가타리의 유목론과 바로크 예술

여기서 우리가 유목미학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왜 들뢰즈/가타리가 바로크를 끌어들이느냐? 둘이 완전 반대로 나아가죠. 바로크 예술은 복잡해지고 화려해진 게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조형 예술 위주로 해나가지만, 음악을 봐도 바로크 음악. 음악 좋아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바로크 음악하면 바흐가 떠오르죠? 바흐를 통한 바로크 음악의 특징은 통주저음이라고 해서 멜로디가 있으면, 그 아래로 저음이 깔려요. 중층적인 음악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브란덴부르크협주곡을 보면요, 멜로디 아래에 쿵.쿵.쿵.쿵 하면서 통주저음이 같이 가요. 바로크 음악을 들으면, 복잡하면서도 풍부해요. 느껴지는 정서가 풍성해지면서 조형예술에서 말하는 입체감이 음악에서 느껴지는 거죠. 깊이로 느껴지죠. 폭으로. 음악에 있어서 입체적이라고 하면 그런 뜻이에요.

바로크 건축, 조각을 보면서 바흐의 음악을 들으면, 바로크가 뭔지 감이 탁 오는 거죠. 전체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화려하고 웅장해요. 많은 게 중층적으로 보여주고 입체감 있으니 깊이 있고 웅장해지는 거예요. 모두 같은 맥락이에요. 고전 음악인 하이든이나 모차르트, 베토벤 음악과 바흐 음악을 비교해서 들으시면 확연히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들뢰즈/가타리가 주장한 것을 여기에 적용해보면, 그리스, 르네상스는 형식의 재현인 거죠. 처음에 정신에서부터 예술의 조형의 세계로 내려오면서 설명했잖아요. 이제 역으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리스 고전기와 로마 전성기에서 추구하는 건 ‘형식의 재현’인 거죠.** 하나의 형식의 재현이기도 하고, 형상의 재현이기도 하고요.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의 통일된 형식이죠. 이것을 추구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재현하는 게 고전예술의 특징이에요. 형식의 재현. 이걸 어떻게 예술에서 구현해내고 살려내는가가 목적이죠.

바로크 예술은, 그 반대죠. 힘의 표현이면서. 들뢰즈가 쓴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로크』라는 책이 있어요. 모나드에 관한 얘기를 많이 다룬 책인데요, 주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따 바로크 조각을 보면, 왜 들뢰즈가 여기에 주목하는지를 잘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형상의 재현이 아닌, 들뢰즈 얘기로는 바로크는 ‘주름의 펼쳐짐’이라는 거죠. 주름이 펼쳐진 게 곧 형상이 되는 거예요. **형상의 재현이 아닌, 주름이 펼쳐진 것이 곧 형상이라는 거죠.** 이걸 작품을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고전기 예술은 형식의 재현이었죠. 형식을 작품 속에 어떻게 구현되느냐. 하지만 바로크는 주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름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형상이 구성되는 거죠. 형상은 주름 안에 접혀 있는 거예요. 모나드랑 같은 개념이죠. 모나드 안에 형상이 하나하나 접혀 있었잖아요. 주름들이 어떻게 펼쳐지면서 형상이 드러나는 거죠.

그건 바로, 질료랑 같은 거죠. 들뢰즈/가타리가 말하는 질료들의 차이. 질료들이 어떻게 접속하고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형상이 결정됐죠. 형상의 맞춤이 아니라 질료의 배치로 인해 형상이 구성되는 거죠. 한 마디로 기계-접속-배치, 이게 리즘형이었죠. 우리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조형에서 정신으로.

고전기 예술은 하나의 형식으로 귀착되죠. 하나의 중심으로부터 뻗어 나오죠. 중심이 통일된 형식이에요. 중심으로 모든 게 다 귀착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양해도 보이지 않는 형식이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그렸던 그림이, 벽돌이었죠. 처음에 벽돌을 그렸는데 이번에는 마지막에 그려서 설명하는 거예요. 고전 예술이 형상, 바로크 예술이 질료. 그리고 벽돌이 완성되죠. 이 얘기가 바로크에서 다시 설명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술에서 정신을 역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벽돌을 그리고 형상과 질료로 나누어서 쭉 내려왔죠. 수목형이나 리즘형이나, 흙 패인 공간/ 매끈한 공간, 정주성/유목성으로 나아가면서 기하학적 추상/표현적 추상으로 나아가서 기하학적 추상에 연결된 재현의 세계, 사실적이고 유기적 세계인 예술. 반대로 표현적 세계를 설명했죠.

들뢰즈/가타리의 철학을 아주 뭉뚱그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질료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고딕 철학의 역량으로서의 반복이 바로크 철학에 들어가는 거고, 제한으로서의 대칭이 고전기 예술인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유목민/정주민 예술을 또 가릴 수 있는 거고요.

▲로코코 예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로코코 얘기를 할게요. 로코코는 바로크의 연장이에요. 사실 로코코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제가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로코코를 바로크와 함께 다루기로 했어요. 18세로 넘어가면서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죠. 17,18세기는 근대성이 가장 발현되는 시기로 놓죠.

18세기로 들어서면서, 영국의 경우는 1688년에 명예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다들 이 시대에 걸맞게 나아가는데, 프랑스의 경우는 절대왕정을 고집하고 있었죠. 그게 끓고 끓아서 터진 유혈혁명이 프랑스 혁명이죠.

로코코 미술은 18세기 들어와서 60,70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기 동안 국소적인 범위에서 유행했어요. 18세기에서 1789년 프랑스 대혁명까지의 시기에 프랑스 베르사유 궁을 중심으로 프랑스 귀족사회, 왕족 사회를 중심으로 유행했던 양식이 바로 로코코 양식이에요.

로코코 양식은 바로크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교를 하자면 바로크가 굉장히 웅장하고, 호방하고 스케일이 큰 반면에 로코코는 좀 더 스케일이 작고 장식적인 특징이 두드러져요. 바로크를 남성적이라고 하면 로코코는 여성적이라고 평해요. 이따 작품을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로코코(Rococo)는 로카이유(Rocaille)라고 해서 장식용 돌 또는 조개라는 뜻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로코코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장식적이고 아기자기하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로크식으로 복잡하고 화려한 이미지는 같이 가되, 더 장식적이고 더 아기자기하고 말도 못하게 섬세하고 그림이나 조각, 건축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유목민 예술이 굉장히 장식적이고 섬세하고 세부묘사가 뛰어나다고 했죠. 로코코 양식이 게르만 민족의 후예이고 그 영향 아래에 있죠. 그래서인지 로코코에서 굉장히 섬세하고 세부적인 표현이 뛰어나요.

로코코라는 말도 경멸의 의미죠. 고전기 예술에서 내려오는 단순미, 절제미에서 다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폼하의 의미도 쓰인 거예요.

고딕, 매너리즘, 바로크, 로코코의 공통점이 있죠. 전통적인 규범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술의 전형으로부터. 그래서 폼하와 조롱, 경멸의 뉘앙스의 의미가 담긴 명칭이에요. 다음 시간에 할 인상주의도 마찬가지고요. 미술 사학에 있어서의 이단아라고 할까.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예술이에요. 우리가 보통 형상과 질료로 나누어서 살펴봤잖아요. 질료 쪽 계열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시대 작품을 직접 보면서 비교도 해보고 특징을 짚는 시간을 갖겠습니다.